

국도 43호선 교통체증 해소된다

축석고개·하송우리·대진대입구 ... 집중개선 의정부 장암동 - 포천 자일리 58km 96개 지점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도 43호에 대한 혼잡구간 개선사업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도 43호선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58km에 96개 지점에 대해 올 11월에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도 43호에 대한 혼잡구간 개선사업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8월27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포천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3일까지 고양, 의정부, 평택, 이천, 여주, 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선안을 확정하고 설계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도내 교통난이 심각한 주요도로 20개축을 도로기하구조와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월부터 오는 2009년12월까지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20개축을 설계비 141억 원과 공사비 2천811억 원, 모니터링 10억 원 등 총 2천962억 원을 투자한다. 또 2008년12월까지 5개축 해당 시군별로 공사를 추진한다. 8개축은 2008년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6월까지 시군별로 공사를 추진한다. 2축에 해당되는 국도 43호선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58km에 96개 지점을 개선하게 된다. 특히 교통정체가 심각한 축석고개 일대(축석검문소와 경희궁, 천지주유소)와 하송우리 일대(송우리삼거리, 하송우리삼거리), 대진대 일대(장승거리, 대진대, 대진대 일대 교차로의 경우는

기하와 차로운영개선, 교통안전시설, 보행자편의시설, 통행체계 변경 등을 실시한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07년도 사업대상축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후 올 3월 기본설계를 실시했다. 또한 올 7월 기본설계에 대해 포천시와 협의하고 지난 8월2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9월 실시설계안 포천시와 협의,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0월초 설계서 포천송부 등을 거쳐 1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2008년6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혼잡구간 개선사업 설명회에서 용인ENG 관계자는 축석검문소 일대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좌회전 차량의 대기행렬이 기존 420m에서 70m로 줄어들고 교차로 통과시간도 492초에서 150초로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송우리 삼거리는 송우리에서 포천방면으로 좌회전차로를 추가개설하고 송우리 방면으로 우회전차로 추가 및 의정부에서 포천방면으로 직진차로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하송우리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포천 방면 직진차로 추가와 포천에서 가산방면으로 우회전 차로확장 등의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대진대 일대 교차로의 경우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진대 쪽으로 좌회전 대기차로를 현재 30m에서 54m로 연장하고 대진대 입구 - 장승거리 구간은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속식제어 교통원단신호제어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교통신호제어기는 온라인제어체계가 불가능하고 요일별 신호시간 고정으로 교통량에 따른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새롭게 도입되는 신호제어시스템은 고정식 신호운영의 단점을 보완하는 감속식제어로 교통량에 따른 교차로에서 대기시간을 조절한다. 의정부 장암동 -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간 43호선 58km 혼잡구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45억5천만원과 시비 24억5천만원 등 총 70억원이다. 2008년도에는 국도 47호선 구리시 갈매동 - 포천시 이동면 구간 130km에 걸쳐 121개지점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영역사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원인과 관계기관, 관련부서 협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신호시스템 운영에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송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38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기준안 마련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향토유적 관리미비...소실우려 관리규정 제정해야

포천시가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혹은 지구에 대해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문화재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중 문화재청 승인을 얻은 후 고시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서 건축이나 기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또 검토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거리제한은 문화재 종류와 규모, 위치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토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포천시가 마련하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준안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혹은 증설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그동안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행위허가, 사업시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민원절수에서 서류

검토, 행위허가, 사업시행 등 2-3 단계의 행정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포천지역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제403호로 지정된 포천 반월성지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관인면 냉정리 소재), 천연기념물 제460호인 포천 작두리의 부부송(군내면 작두리 소재) 등이 있다.

또 경기도지정 문화재는 경기도 제46호로 지정된 청성사를 비롯해 용연서원과 인평대군지체문비, 포천 어룡리 석조여래입상 등이 있다. 또 경기도 지정 기념물은 제24호인 이항복 선생 묘, 채산사, 서성선생 묘, 화산서원, 충무단, 인평대군묘 및 신도비, 영송리 선사유적, 고모리 성지 등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포천향교와 포천 금원리 지석묘, 안동감씨고가터 등이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포천시가 지정한 향토유적은 관련 법규가 없어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포천지역에는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천계대원군 묘 및 신도비를 비롯해 자작동 지석묘, 석불높이가 4.44m에 어깨폭 1.15m, 가슴폭 75cm의 거대한 석불인 용화사의 구름리 미륵불상, 봉래 암사원 선생이 이를 명명했다는 금수정, 주자와 조선 후기 대학자인 송시열 선생, 이항호 선생, 김평묵 선생의 영정을 봉안한 운암영당 등 46호까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포천시 향토유적은 문화재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포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다. 이같은 향토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름리미륵불상이 있는 군내면 용화사의 경우 비록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문화재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인근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우수한 문화유산이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실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송원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일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7년07월26일부터 2007년08월29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금이나 물품을 받으신 분들도 아래와 같이 밝혀 서로 돕고 사는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성금 및 물품 접수내역

-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의 고분 200,000원(자동이체)
- 박노현 용어심사(주) 대표이사 100,000원(자동이체)
- 김혁주 포천김리교의 목사 100,000원(자동이체)
- 강육자 늘봄꽃의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송우리지역 노년친구회 모임 김원성 회장 외 회원들 100,000원(월 정기이체)
- 열린노래방 대표 김영철
-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국
- 퀵 노래방 대표 정수환
- 유영가 노래방 대표 채경순

- 김수동 (재)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원(자동이체)
- 한영숙 정경상계대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박병식 이동및김비공장 대표 50,000원(자동이체)
- *휴재철 100,000원(자동이체)
- 원 노래방 대표 강수남
- 팝콘 노래방 대표 김진희
- 초콜릿 노래방 대표 이민철
- 블리 노래방 대표 김영찬
- 삼 노래방 대표 정동민
- M·S노래방 대표 김현성
- 2차 노래방 대표 하준자
- 코러스 노래방 대표 이재정

▶ 성금 및 물품 전달내역

- 김종수(백현병 어린이의 아버지) 300,000원
- 차만별 대경중학교 2학년 200,000원
- 황재지 경북중학교 1학년 200,000원
- 권리진 경북중학교 3학년 200,000원
- 변예을 영평초등학교 1학년 100,000원
- 윤우민 영평초등학교 5학년 100,000원
- 송태식 대경중학교 1학년 200,000원
- 김정순 대경중학교 3학년 200,000원
- 김철순 옥곡노인 할 20kg 2포 100,000원
- 서요한 영평초등학교 2학년 100,000원

포천신문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예금주: (주)포천신문사



2007년 포천시 호남 향우회 한마음 대축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호남인 친목의 한마당 감동과 축제의 만남

- 일 시 : 2007년 9월 9일(일) 개최식 14:00
- 장 소 : 포천종합 운동장(실내체육관)
- 주 관 : 포천시 호남향우회
- 후 원 : 포천지회, 송우지회, 가산지회, 영중지회, 영북지회, 일동지회, 이동지회

- ◆ 인기가수 송대관 초청쇼
- ◆ 남보원 등 방송인 다수 출연
- ◆ 품바(각설이 공연)

- ◆ 노래자랑(최우수상 1명 대형냉장고)
 (우수상 1명 대형세탁기)
 (장려상 2명 28인치 TV)
 (인기상 2명 압력밥솥)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함께하는 호남인, 참여하는 하나의 호남인 ◆